

“폐광정책 철회하라”... 화순 여론 부글부글

화순군과 화순군의회가 정부의 화순광업소 폐업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등 화순탄광 폐광 소식에 화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화순탄광 등 대한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을 폐광한다는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1일 화순군과 화순광업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화순광업소, 2019년 태백장성광업소, 2021년 삼척 도계광업소 순으로 석탄공사를 폐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탄 소비 감소와 막대한 적자·부채 등이 이유다. 지난해 말 기준 석탄공사의 빚은 1조5989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화순광업소는 매년 23만t을 생산하고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월 평균 4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근로자 수는 520여명이며 가족 등 1400여명이 화순에 거주하고 있다.

폐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순광업소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천막농성에 나섰다. 2일 교섭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구군 화순군수는 최근 화순광업소를 방문해 “정부의 폐광 방침에 절대 반대한다”

석탄공사 구조조정, 화순탄광 등 전국 3곳 폐광 계획 군수·군의회 반대 성명서... 광업소 노조는 천막 농성



구군 화순군수가 최근 화순광업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노조를 찾아 ‘정부의 폐광 방침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화순군 제공>

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군수는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화순광업소를 방문해 “화순광업소와 한 뜻으로 폐광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화순탄광은 1934년부터 본격적인 채탄작업이 이뤄진 곳으로, 한때 4000여명의 근로자가 지하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국가발전과 화순 경제발전을 위해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현재 정부는 만성적자라는 해괴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폐업을 운운하고 있어 전 국민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구 군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한 상태며, 지난 19일자로 화순 탄광 폐광 반대 성명을 내고 화순군민과 함께 폐광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화순군의회(의장 이선)도 지난 28일 화순읍 5일시장에서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폐광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온 산업 역군들과 지역 주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탄광지역의 경제침체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생존권 수호를 위해 지역민 각계 사회단체와 연대해 총력 대응에 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순광업소 폐업설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여론진화에 나서고 있다.

/화순=배영재기자 byj@



유두석(가운데) 장성군수가 최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장성역 광장 교통섬에 꽃을 심고 있다. <장성군 제공>

엘로우시티 장성, 주민들이 직접 만든다

5개 사회단체 200여명 메리골드 30만본 식재

장성군이 새롭게 만든 브랜드인 ‘엘로우시티’에 걸맞은 경관이 주민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한 장성읍주민자치위원회, 모범운전자회장성지회, 한국농업경영인장성군연합회, (사)장성군새마을회, 한국여성농업인장성군연합회 등 5개 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장성을 곳곳에 꽃동산을 조성했다.

사회단체 회원들은 장성군에서 추진 중인 엘로우시티 조성에 직접 참여하자는 뜻을 모으고, 장성을 애용할 회전 교차로와 장성역 광장 교통섬, 방구다리

회전교차로 등 3곳에 메리골드 30만본을 식재했다.

유두석 군수는 “엘로우시티 조성의 주체는 군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를 넘어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주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엘로우시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민선 6기 들어 노란색 꽃과 나무가 가득한 사계절 향기 나는 ‘엘로우시티’라는 브랜드를 창출하고, 다양한 색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 백아산 자연휴양림 새단장

개장 20년 맞아... 도로 포장·노후 시설 리모델링

화순군이 ‘피톤치드’ 가득한 백아산 자연휴양림을 새 단장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화순군은 “개장 20년을 맞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화순군은 장호 보수가 필요한 8호~13호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숲속수련원은 다목적세미나실 등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화순군은 또 주차장 및 관리도로 포장을 위해 낡은 숲속의 집 2동을 철거하고 울해 1동을 신축하기로 했다.

백아산 휴양림은 13동 20실로 숲속의 집 12동 14실, 숲속수련원 1동 6실을 갖추고 있으며 조류관찰장, 잔디광장, 운동시설, 족구장, 정자가 있고 등산로와 연결돼 있다.

백아산자연휴양림은 백아산(해발 810m) 능선이 남쪽을 향해 깔고 있는 동화석굴 계곡의 휴양시설로, 휴양림 시설 관리가 뛰어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휴양림에서 15분 거리에 화순온천리조트 등이 있다.

또 백아산 서쪽 산록에는 가족단위 휴양

모텔, 사계절 썰매장을 갖춘 백아산 관광목장 등 주변에 관광인프라가 풍성해 광주시민의 배후휴양지로 인기가 높다.

특히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연간 ‘피톤치드’ 발생량이 715ppt로, 전남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 웰빙 휴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 중에 발산하는 성분으로, 호흡기·아토피 질환 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백아산 등산로는 가파르지 않아 가족단위의 산행코스도 제적이다. 백아산의 명물로 자리 잡은 백아산 하늘다리를 해발 756m지점 마당바위와 절터바위를 연결하는 연장 66m로, 최대 130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다.

손재정 화순군 산림소독과 휴양림관리 담당은 “지난 1996년 개장한 백아산 자연휴양림이 20년이 흐르면서 숙박 및 편의시설이 노후화해 수시로 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다”면서 “화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백아산의 수려한 경관과 쾌적하고 편안하게 쉬 수 있도록 힐링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배영재기자 byj@



담양 봉산 수박 본격 출하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담양 ‘봉산 한마음 수박’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면서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봉산 수박’은 무농약 재배 인증을 획득하고 비파괴 당도측정을 통해 당도가 12Brix이상의 수박만을 선별출하한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성과

웨딩여행·한옥 숙박체험 등 패키지 상품 큰 인기

담양군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획 패키지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상해웨딩센터와 함께 추진 중인 담양 웨딩여행상품을 비롯한 죽녹원 내 한옥 숙박체험, 죽순 요리 체험 상품 등이 인기다.

담양군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16 중화권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획 패키지를 통해 중국 상해와 요녕성 언론인을 대상으로 시서와 풍류체

험을 진행하는 등 중화권 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담양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을 잇는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로 일본인 관광객을 공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 25일 일본 H.I.S 여행사와 서울BS투어 등 글로벌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는 한편 신규 여행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을 들어 담양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담양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내외 우수 여행사 글로벌마케팅팀과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과거는 빛깔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 www.geumsoojang.com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

빛가람 탐공인중개사

나주혁신도시 매물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국도1호선 도로변(혁신도시 인근)
 - 토지 매대 (토지 7,657㎡)
 - (근성 1층 258㎡, 사무실 2층 72㎡, 1층 점포 173㎡)
 - 가든 식당, 사무실, 창고, 한옥기와주택(조경 최상)
 - 매대가 25억
- ▶ 나주시 빛가람동 근린 생활 부지 690㎡, 매 15.5억
- ▶ 빛가람동 부영 1차와 토담빌딩 801호 임대
 - 코너 상가, 전망최상 - 전용 179㎡
 - 스키아일랜드, 레스토랑, 헬스장, 노래방, 외우바
 - 임대: 보 5천, 월 130만원
- ▶ 빛가람동 초·중·고·알 2층 상가 임대
 - 아파트 최대 밀집지역 코너상가 - 전용 210㎡
 - 치과, 한의원, 피부과, 커피숍, 미용실
 - 임대: 보 1억, 월 200만원
- ▶ 나주시 빛가람동 중흥 오피스빌 1·2차 상가 2층 임대
 - 1차 2층 상가 임대 203호, 204호
 - 2차 2층 상가 임대 211호, 212호, 213호, 215호
 - 중흥 아파트 1·2차 정문앞 2층 상가
 - 병 의원, 학원, 미장원,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 ▶ LH 6차 아파트 인근 코너 1층 상가 임대 보 3천만원, 월 50만원
- 5층 상가 임대 보 3천, 월 130만원
- ▶ 단독주택 부지 269㎡ 매 1.62억
- ▶ 영무 대광 아파트 110㎡ 매 2.3억 (확장비 별도)
- ▶ 대광아파트 단지내 상가 1층 47㎡ 매 3.9억

PC방, 맘스터치 최적지 임대!

분양 및 임대문의 010-6688-9114 / 010-9120-9114

법원경매/공매/NPL (주)사랑방경매

[전주시 덕진구 근린상가] 송천동 쌍용1차아파트 정문앞 지하1층~지상 4층, 3층주거지역 병원, 음식점, 소매점, 수익률 높음 대지 968㎡ / 건물 2418㎡

[고창군 신림면 상가주택] 자포리, 6차선도로점, 관리지역 지하1층~지상2층 음식점및주택 토지 2235㎡ / 건물 373㎡

[보성군 조성면 내대지] 조성지구대인근, 도로접합 일반상업지역아스팔트포장도로점 상가및 주택부지적합 대지 3728㎡ (1128평)

[정읍시 신탄인읍 대지] 일반상업지역 2차선아스팔트포장도로점 대지 883㎡(267평)

감정가 1억 8천 9백만원 / 최저가 1억 5천 4백만원

감정가 3억 0천 9백만원 / 최저가 2억 1천 7백만원

감정가 2억 1천 9백만원 / 최저가 1억 5천 4백만원

감정가 1억 6천 8백만원 / 최저가 1억 1천 7백만원

(주)사랑방경매 | Sarangbang auction Consulting Co., Ltd. | Tel. 062)233-3372 | 자산통 법률구조공단 영